

‘2년차 그랑프리 3위’ 정하늘처럼 극복하라

(21기)

강호·전원규 기대 못미치는 활약
2016년 정하늘 활약이 성공모델
“짓누른 부담감 덜고 여유 가져야”



21기 정하늘

스포츠계에서는 ‘2년차 징크스’가 있다. 경륜도 마찬가지다. 훈련원 졸업 이후 정식 프로무대에 데뷔했을 때 1년 동안은 활력과 패기에 넘쳐 긴장을 풀지 않고 열심히 한다. 하지만 2년차에 접어들면 자신의 실력에 우쭐해져 어깨에 힘이 들어가거나 커져버린 팬들의 기대를 부담스러워해 성격이 부진해지는 경우가 많다. 일종의 슬럼프(slump)로 노력이 따라잡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피나는 자기 극복 과정이 필요하며, 슬

럼프를 뛰어넘으면 오히려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2년차 징크스란 말을 무색하게 만든 확실한 성공모델도 있다. 바로 정하늘(21기, 슈퍼특선, 29세)이다. 훈련원 9위로 선발급에서 데뷔해 고속성장한 후, 2년차였던 2016시즌에는 그랑프리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선보였다. 올해 2년차를 맞이한 23기 선수들이 징크스 극복을 위해 참고해야 할 대표적인 선수다.

‘아시아게임 금메달리스트’ 강호(23기, 특선, 32세)는 2년차 징크스에 대해 “내 계획에서 벗어나는 경기가 되면 마음이 급해지면서 승부 시점이 길어져 경기 운영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 마음을 최대한 편하게 먹으려고 한다. 안 좋았던 경기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경기 흐름 파악에 신경 쓰면서 경주를 준비 하겠다”라며 특유의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뒤늦은 데뷔 탓에 큰 경주 경험이 부족하지만 11회 결승 진출해 우승 한 차례, 준우승과 3차는 각각 두 차례씩 45%의 삼연대율로 경륜스타로 커나갈 입지를 다지고 있다. 하지만 팬들의 기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다.

훈련원 2위 출신의 전원규(23기, 특선, 30세)는 데뷔 시즌에 우수급에서 연대율 81%로 자신의 커리어를 나름 화려하게 장식하며 특선급 진출에 성공했다. 특선급에서는 55% 연대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결승 진출은 단 한차례뿐이다. 올해에는 강호와 마찬가지로 심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된 과제로 꼽힌다. 훈련원 3위 출신 김관희(23기, 특선, 27세)와 5위였던 조주현(23기, 특선, 25세)도 특선급에서 각각 삼연대율 27%, 45%로 성장 가능성을 보여 올시즌 기대가 크다.

‘경륜위너스’ 박정우 예상부장은 “지난 해 신인으로 데뷔했던 때와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늦은 나이에 데뷔한 강호, 전원규 선수는 부담감도 있을 수 있으나 털어내야 한다. 반면 젊은 선수들은 아직 어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해야 한다. 이는 경주에 대한 여유가 생기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지난 시즌은 어려웠지만, 이젠 많이 익숙해지고 경쟁에 있어 편해졌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경륜 훈련지 최강팀은?

4월 5~21일 훈련지 대항전 개최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경륜정총괄본부는 4월 5일부터 21일까지 ‘K SPO 창립 30주년 기념 이사장배 훈련지 대항전’을 개최한다. 경륜 개장 이래 처음으로 한 경주에 3개 등급 선수 모두가 참가하는 방식으로 기획됐다.

훈련지 대항전은 훈련지별 4대 4 연대 경주 토너먼트를 실시해 최종 우승팀을 가린다. 8인제 경주로 진행되며, 총 10개 팀이 북부그룹과 남부그룹으로 나뉘어 토너먼트를 치른다. 북부리그는 가평, 의정부/양주/일산/팔당, 동서울/광명, 미원/세종, 인천/계양, 남부리그는 대구/구미, 부산, 광주/전주, 김해/동창원, 대전/유성으로 구성된다. 전년도 우승팀(가평팀)과 준우승팀(대구/구미팀)은 각 리그 결승에 자동 진출한다. 훈련지별 기량 차를 고려해 특선급 SS반과 24기 신인 선수는 출전이 제한된다.

각 그룹별 예선전을 거친 후 4월 19일 남부리그 결승, 20일 북부리그 결승을 치른다. 각 그룹 승자는 4월 21일 ‘경륜 최강 훈련지’ 타이틀을 놓고 최종 결승전을 펼친다. 우승팀에게는 500만 원의 상금과 트로피가 수여되며, 준우승팀에게는 300만 원의 상금과 트로피가 수여된다. 정용운 기자



경정에 있어서 스타트는 승패를 좌우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다. 한 템포 빠르게 치고 나간다면 우승을 꾀할 수도 있지만, 정해진 시간을 벗어나 스타트 라인을 통과하면 출발위반 제재를 받는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너무 빨라도, 늦어도 패널티...경정 스타트 ‘1초 승부’

모터·바람 등 일정한 스타트 변수
주선보류 총 3회 뎀 은퇴...큰 부담

속도 경쟁을 하는 경정에서 스타트는 승패를 좌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불리한 아웃코스에서도 상대들보다 한 템포 빠르게 치고 나간다면 우승을 꾀할 수 있는 중요한 승부 요소 중의 하나다.

경정 스타트는 대시계가 0초(12시방향)에서 1.0초를 가리키는 사이에 물 위에 그려진 가상의 출발선을 통과해야 하는데 일정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모터의 성능이 각각 다르고 바람과 수면 상황 등 환경적인 요인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해진 시간 안에 스타트

라인을 통과하면 문제가 없지만 조주거리나 가속 타이밍을 맞추지 못한다면 출발위반으로 사전 출발(F) 또는 출발 지체(L)라는 제재를 받는다.

2017년부터 출발위반을 한차례 범하면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낱짜를 소멸해 나가는 방식으로 제재를 운영하고 있다. 유예기간은 2년이다. 4반기(2년)동안 출발위반 없이 안정적으로 스타트를 끊고 해당 기간을 소멸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유예기간 안에 한 번 더 출발위반을 범하면 주선보류 1회가 주어진다. 주선보류를 총 3회 당할 경우에는 은퇴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정선수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다.

올해까지 소멸일이 남아있는 선수는 총 17명이다. 권현기, 박준호, 황이태는 주선

보류 2회에 출발위반 1회를 기록하고 있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주선보류 1회를 안고 있는 반혜진, 이미나 또한 매 경주 출전할 때마다 스타트에 바짝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이 밖에도 김종민, 최영재, 주은석, 김인혜, 김용선, 김영민, 김종목이 전반기에 소멸되고, 후반기에는 권명호, 한성근, 김현철, 정주현, 정민수이 위기에서 벗어난다.

출발위반 유예기간을 안고 가는 선수들은 스타트 승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선보류를 의식해 과감하게 가속 레버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 경주에 임하는 자세 또한 스타트보다는 전술 운영 쪽으로 포인트를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용운 기자

4월 5일부터 금·토 경륜 시간 늦춰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경륜정총괄본부는 4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매주 금·토 총 23주간 경륜 마지막 경주 시간을 1시간 늦춰 운영한다. 이에 따라 고객 입장시간은 현행 오전 11시에서 낮 12시로 늦춰지고, 교차투표 1경주 시작 시간은 현행 낮 12시 20분에서 낮 12시 50분으로 변경된다. 마지막 경주는 현행 오후 7시에서 오후 8시로 바뀐다. 변경된 경주 시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륜 홈페이지(www.kcycle.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요일 경륜 시간은 현행과 같이 오전 11시 50분에 시작해서 마지막 경주는 오후 7시에 종료된다.

1차 경정 심판 판정 설명회 개최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경륜정총괄본부는 20일 중앙·장안지점에서 제 1차 경정 심판 판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심판 판정 설명회는 경정 경주 판정에 대한 고객 이해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경정 심판이 장외지점을 직접 찾아가 고객들을 만나서 프로그램이다. 이번 판정 설명회에서는 심판 판정 기준에 대한 안내와 주요 사례 소개, 심판 운영 장비 설명 그리고 경주 내용 관련 고객과의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뤄졌다. 또한, 스타트급 경정 선수 팬사인회도 열려 고객들에게 경주에 대한 보다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했다. 참여 고객에게는 심판 판정 가이드북과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했다. 정용운 기자

편집 | 김태건 기자 bong82@donga.com



51% “삼성, 올해도 롯데에 강한 모습 보일것”

야구토토 스페셜 3회차 중간집계
지난시즌 상대전적 12승4패 강세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주)케이토토는 27일(수)에 열리는 2019 시즌 한국프로야구(KBO) 3경기를 대상으로 한 야구토토 스페셜 3회차 투표율을 중간 집계한 결과, 참가자의 51.39%가 롯데-삼성(3경기)전에서 원정팀 삼성의 우세를 전망했다고 밝혔다.

홈팀 롯데의 승리 예상은 31.74%를 기록했고, 양 팀의 같은 점수대 예상은 16.87%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최종 점수대 예상에서는 롯데(2~3점)-삼성(4~5점)이 8.53%로 1순위를 차지했다. 롯데(2~3점)-삼성(6~7점)과 롯데(4~5점)-삼성(6~7점)은 각각 6.78%와 6.26%로 그 뒤를 이었다.

롯데와의 맞대결을 포함해 6번의 시범경기에서 모두 패한 삼성이 오히려 많은 지지를 받은 것에는 간절한 경기를 펼쳤던 지난 NC와의 2차전 경기 내용이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3년 연속 가을잔치

에 제외됐었던 팀이다. 더불어 최근 시범경기 6게임에서 모두 패하며 불안한 출발을 예고했다. 다만, 이런 어려운 상황이 시즌 초반부터 선수들에게 더 강력한 동기부여가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롯데에서도 신봉기와 아수아혜가 4할 이상의 타격을 보여주고 있어 쉽지 않은 한 판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지난 시즌 롯데에게 12승4패의 우세한 상대전적을 기록한 삼성이 투혼을 이어나갈 수 있다면, 승리를 거둘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한 판이다.

NC-KT(1경기)전에서는 원정팀 KT 승리 예상이 54.15%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어 NC 승리예상(31.93%)과 양팀의 같은 점수대 기록예상(13.91%)이 그 뒤를 이었다. 최종 점수대는 NC(2~3점)-KT(6~7점)이 8.55%로 최다를 기록했다.

마지막 KIA-한화(2경기)전에서는 KIA 승리 예상(45.92%), 한화 승리 예상(38.04%), 양팀의 같은 점수대 기록 예상(16.05%)의 순이었다. 최종 점수대 예상은 KIA(6~7점)-한화(2~3점)이 6.59%로 1순위를 차지했다.

농구 6강PO 3차전 대상 매치게임 연속 발매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는 27일과 28일 오후 7시30분에 열리는 KBL 6강 플레이오프 3차전을 대상으로 매치게임을 연속해서 발매한다.

27일에는 고양체육관에서 펼쳐지는 오리온과 KCC의 6강 플레이옔� 3번째 맞대결을 대상으로 매치 23회차가 농구팬을 찾아간다. 나란히 1승씩을 나눠가진 양 팀은 오리온의 안방에서 펼쳐지는 3차전에서 누가 승리 하느냐에 따라 4강 플레이오프행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때문에

많은 농구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KCC가 94-87로 승리한 1차전을 대상으로 한 매치 19회차에서는 모두 2만4447명의 농구팬이 참여한 가운데, 312명이 적중 성공하며 463.3배에 해당하는 적중금을 수령했다.

2차전은 86-97로 오리온이 승리했고, 1차전보다 훨씬 증가한 3만16290명이 참여해 그중 935명의 농구팬이 양 팀의 전반 및 최종 점수대를 정확히 맞히며 108.6배 배당을 받았다. 이어 28일(목)에는 KT와 LG의 6강

스포츠토토-넥슨어린이재활병원 아동운동발달치료실 현판식 개최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주)케이토토(www.ktoto.co.kr)가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병원장 임윤명)에 전달한 후원금으로 조성된 아동운동발달치료실 현판식(사진)을 진행했다. 2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푸르



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을 방문한 케이토토의 김철수 대표이사는 발달지연을 겪

플레이오프 3차전 매치 24회차가 발매를 기다리고 있다. 치열한 1차전을 보여준 양 팀은 자리를 옮겨 3차전을 준비한다. 94-92로 뜨거운 승부를 펼친 끝에 LG가 승리를 가져간 1차전을 대상으로 한 매치 게임에서는 5만6006명의 농구팬이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 이 중 3225명의 무더기 적중자가 43.8배의 배당률을 쟁겼다.

한편 이번 KBL 포스트시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농구토토 매치 게임은 경기시작 10분전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경기가 모두 종료된 후 스포츠토토 홈페이지(www.sportstoto.co.kr) 및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인 베타맨(www.betman.co.kr) 등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고 있는 아동들의 원활한 치료를 위해 조성한 아동운동발달치료실을 방문해 병원 측에서 제작한 현판을 걸고, 꾸준히 아이들의 건강과 치료를 위해 힘을 쓸 것을 약속했다.

특히 이번 치료실의 경우 재활을 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최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원활한 치료를 진행하기 위해 알록달록한 색깔의 치료기구들과 폭신한 바닥을 제공하는 등 마치 놀이터를 연상시키는 실내 구조로 눈길을 끌었다.